

圖書館人的 意見

朴 海 鍾

讀書의 季節도 조용히 지나가고 「1962 年은 圖書館法 制定의 해」 무슨 映畫 廣告의 한 句節 같이 들리던 口號도 虛空에 힘 없이 메아리 치면서 거품으로 사라지나보다. 어이 없는 생각을 달래면서 푸념 섞어 몇가지 생각을 해 본다.

× × ×

圖書館의 重要性을 새삼스러이 말할 必要는 없다. 굳이 한 마디 덧붙인다면 「一國의 文化의 尺度는 그 나라의 圖書館에서 찾아라」하는 말로 集約해 表現하고 싶을 뿐이다. 先進 諸國의 圖書館界의 樣相과 後進國에 있어서의 그것과를 比較 考察해 보면 우리는 쉽게 이것을 實證的으로 認識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圖書館界의 現實은 어떠한가? 한 마디로 後進中의 後進이라고나 表現할는지 그 量에 있어서나 質에 있어서나 幼稚한 段階에서 脫皮치 못하고 있음은 否認할 수 없다. 勿論 圖書館도 그 社會의 進歩 發展과 더불어 成長하기를 期待함이 順序일진댄 모든 分野가 後進인 中에 唯獨 圖書館만이 發展되기를 어찌 바랄 수 있을까 마는 우리의 實情은 그렇지도 않다.

一例를 든다면 解放後 數 많은 各級 學校가 雨後竹筍格으로 設立되고 山間 僻村에서도 教會의 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거리마다 느느니 劇場이건만 圖

書館만은 市民과 因緣이 멀어져 退嬰을 甞치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圖書館 없는 學校에서 무슨 탐탁한 열매를 거두며, 無知에 뿌리 박은 信仰이 그 무슨 힘이 될까. 마음의 양식을 求하지 않고 눈요기로 滿足하려는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면 왜 圖書館은 이와 같이 沈滯狀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經濟的 窮乏, 世態의 混亂, 政策의 貧困 等等... 여러 가지 原因과 理由가 있겠지. 허나 客觀的 與件을 들어 現實을 辯明하기에 앞서 圖書館에 直接 關與하는 圖書館人 自身의 積極的이고 意慾的이며 創意的인 努力과 研究의 缺乏을 스스로 反省해 餘地는, 없을까? 解放이 된지도 이미 17년이란 긴 歲月이 흘렀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인가? 寡聞의 탓인지 모르겠으나 버젓이 들어 말할 거리가 없는 듯 하다. 있다면 先進 諸國에서 代를 이어 장만하여 놓은 열매를 따다가 療飢해보려 한 것이 고작이요 그나마 걸 할기에만 汲汲했지 참 내 것으로 消化시키지도 못하고 있다고 깎아 말하면 모르는 소리라 할까?

一見 가장 效果的인 方法인 듯 하나 흔히 犯하기 쉬운 誤謬의 一例를 너무 安易하게 남이 心血을 기울여 成就해 놓은 그

結果만을 따오려는 手法에서 發見한다. 解放과 함께 값진 贖物로서 받아 들인 民主政治가 그러했고 華麗한 西歐式 文物 制度와 生活 方式의 風潮를 無批判的으로 模倣한 結果가 어떠 했던가를 되 새겨볼 적도 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圖書館도 그 고갱이만 도려다가 이 땅에 移植한다 해서 뿌리가 뻗을 理없음은 自明한 이치다.

民主政治도 우리의 體質에 맞추어 키우고 消化시켜야 할 것이고 社會風潮도 우리의 입 김으로 부풀게 해야 참 내 것이듯이 圖書館도 우리 땅에 健實하게 뿌리 박게 하기 爲해서는 우리의 답 방울로 거름을 해야만 비로소 될 수 있는 얘기다.

가장 根本的이고 初步的인 그리고 必須的이며 先決을 要하는 일들을 忘却한 채 虛空을 더듬고 있는 것이 오늘의 實態가 아닐까? 우리의 現實의 位置를 直視하고 차근 차근 그리고 꾸준히 前進하려는 마음의 姿勢가 缺如된 것은 아닌지? “急하거든 돌아서 가라”했다.

또 言必稱 尙今 圖書館法 없음을 嘆하고 이의 制定을 執拗하게 主唱하고 들 있다. 勿論 圖書館法도 重要하고 時急하다. 하루 速히 法이 마련되어 圖書館 發展을 爲한 튼튼한 뒷 바침이 되어 주기를 渴望해 마지 않는다. 그러나 무릇 法이란 必要에 應해서 誕生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많은 法이 숨바꼭질 하듯 制定되고 고쳐지곤 하는 中에 홀로 圖書館法만이 아직 햇빛을 못보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 社會는 아직 圖書館法의 必要性을 느낄만한 霧氣가 造成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端的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卽 아직 그 만큼 成熟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圖書館法 따위는 奢侈品

視될 程度로 認識이 不足한 것이 우리 社會의 現實이다. 新聞 雜誌며 라디오나 TV 등 허구 많은 마스콤의 미디어가 그 偉力を 誇示하고 있고, “閣下,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하는 따위 별 해괴한 話題도 그 德을 입어 人口에 膾炙되지만 “圖書館을 세워라”, “圖書館法 制定이 時急하다”는 따위 점잖은 얘기는 아예 얘기할 興味도 없는 듯 忘却의 世界에 묻진채 잠자고 있지 않은가. 그 原因이 어디에 있을까? 圖書館法의 制定을 서두르기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아니 이미 했어야 할 일이었다.

그것은 市民과 社會에 對한 PR 活動의 展開다. 圖書館의 重要성과 그 補強 乃至 發展의 時急性을 切實히 認識하게끔 그들을 이끌어 全市民 全社會의 힘찬 要請에 依해서만 期待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輿論과 衆意에 따라 前進하는 民主社會안에서 그의 뒷바침 없이 일을 強行해 보려는 愚를 이 以上 犯하지 말자.

이를 爲해서는 마스콤의 힘을 비는 것도 緊要하다. 그러나 마스 미디어로 하여금 이에 呼應해 오도록 引導하고 刺戟을 줄 義務는 라이부라리안에게 지워져 있다. 勿論 政治人이나 教育者들의 近視眼的이고 無軌道한 政策에도 그 責任을 물을 수도 있고 財力의 貧窮에도 그 口實을 찾을 수 있으나 보다 根本的인 責任은 우리 自身에게 있음을 숨길 必要도 없다. 要컨대 우리 스스로의 힘이 未洽했다. 加一層 積極的이고 意慾的이며 創意的인 活動으로 이 不毛地를 開拓하는 마당에 行動으로써 臨하려는 姿勢가 切實히 要請된다.

× × ×

나는 敍上한 바 要請에 副應하여 이와 같은 諸 與件을 克服하기 爲한 具體的인 方案의 하나로서 다음 몇 가지를 提案한다.

× × ×

첫째 司書로서의 技術的 力量의 提高와 圖書館學 研究의 한 契機를 마련하고 圖書館人 相互間의 接觸과 紐帶의 強化를 圖謀하기 爲하여 圖書館 相互間의 職員交換 制度를 實施하자는 것이다.

從來 實施해 오던 圖書館 實務者 講習會나 또는 去般 開催를 본 全國 圖書館大會 등 종종 圖書館人의 講習이나 集會도 이러한 趣旨에 저지 않은 寄與를 한다고 생각 된다. 그러나 모처럼의 講習會도 短期를 免치 못하여 具體的이고 細部的인 問題를 滿足할 만큼 다룰 수 없는 것이 아쉬우며 公式 集會의 場所에서는 그 法格上 格式에 拘束되어 形式的으로 흐르기가 일수이다. 더구나 圖書館의 일이란 것이 그렇게 一般的이고 普編的인 問題가 問題되는 境遇보다는 도리어 特殊的이고 局部的이며 日常 豫想치 못했던 케이스에서 問題가 提起되는 것이 恒例인데 그와 같은 스케줄에 依한 講義나 討論 만으로는 徹底를 期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 뿐만 아니라 各 圖書館마다 무엇이든 自己 代리의 特性이나 長點을 지니고 있을 것이며 反面 無意識中에 端點을 內包한 改良의 機會나 아이디어를 가지지 못하여 進展을 疎忽할 수 없는 事例도 能히 推想할 수 있다. 이것을 圖書館 相互間 實務를 通하여 彼此에 意見을 交換이나 技術의 切磋琢磨로 長點을 補強하고 短點을 是正해 나아가갈 수 있는 方便이 아닐까?

나는 이러한 實效를 每年 延大나 梨大

의 圖書館學科의 實習生들을 맞아 같이 일해 보는 가운데서도 實感的으로 體驗한다. 그들로부터 學理的인 啓示를 종종 맛볼 수 있는 反面 그들은 實務的인 面을 體得함으로써 相互 補完의 實效를 거두는 한 좋은 契機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效果는 實務者 間의 交流를 通해서도 훌륭히 얻어질 수 있을 것을 確信한다.

그 뿐 아니라 圖書館人 相互間의 親睦을 增進하고 團結을 圖謀할 수 있으며 從來 가로 놓여 있던 圖書館 間의 間隔을 除去할 수 있을 뿐 아니라 將次 이루어져야 할 “인터·라이부라리·론” 制나 參考文獻 交換 等の 實施를 爲해서도 좋은 모멘트가 될 것을 믿어 疑心치 않는다.

勿論 極히 進歩된 學理나 實際를 先進 諸國의 圖書館界에서 본받는 것이 捷徑이요 效果의인 듯 하나 그네들의 理論이나 實際가 우리에게 即刻 適用될 수 없는 事情도 不無할 것이고 또한 그 質量 兩面의 水準의 差도 顯著하여 바로 그것을 흉내 낼 수 없는 素地가 多分히 있을 뿐 아니라 歷史的, 地理的, 文化的, 異質性에서 오는 隘路도 看過할 수 없음을 認識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안다.

先進에게 배울 것은 배우는 一方 또한 우리대로의 體質에 맞는 特殊面을 그 基礎서부터 自力으로 開拓해 나아가는데 加一層 奮發해야 할 餘地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를 爲한 試圖의 하나로서도 職員 交換 制度는 저지 않은 寄與를 할 것으로 믿어진다. 우물 안 개구리 格으로 自己의 思考나 自己流의 方法을 唯一 最良의 것으로 固執하거나 排他的인 慣習에서 벗어나 渾然 一體에로의 길을 열기에 吝嗇하지 말 것이 要請된다. 이와 같은

일을推進함에는 勿論 여러가지 隘路도 없지 않을 것이나 就中全體圖書館의 이에 對한 充分한 理解와 積極인 協調가 前提되는 것은 贅言을 不要한다. 그리고 이의 實現을 爲하여 圖協이 中媒役을 周旋하는 것도 한 方法일 것이고 直接 當事者間의 協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낱 素朴한 意見이긴 하나 實際的인 問題를 좀 더 具體的이고 綿密히 檢討하여 期必 實踐에 옮겨 지기를 希望한다.

× × ×

둘째, 이와 같은 職員 交換制와 아울러 圖協을 名實 相符한 “라이부라리안·센터”로서의 總體的이고 有機的이며 能率的인 機構로 育成 強化하고 또 이를 通하여 보다 強力한 PR 活動을 展開할 수 있도록 俾야 하는 것이다. 財政的인 隘路도 10分 理解하지만 從來의 圖協은 우리의 後進性을 挽回하기에는 너무나 微力했다. 筆者만의 認識 不足인지는 몰라도 고작 몇몇 有名 人士들의 會合場所요 “도협월보”라는 機關誌를 發行하는 程度外에 또 무슨 일을 하는덴지 모를만치 平會員들과는 別로 因緣이 없는 機關인 것만 같아 안타까움을 禁치 못한다. ALA나 JLA의 指導의 役割의 比重을 參酌할 때 우리의 KLA는 너무나 無力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現狀을 與件의 탓으로만 돌리기에 는 너무나 深刻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後進이면 後進일 수록에 이런 面의 強化 育成이 矯求되는 것도 否認할 수 없다. 이러한 現狀을 打開하여 躍進을 期하고 그 本來의 眞面目을 一新하여서 그 權威를 確立하기 爲해서는 全體 라이부라리안의 總團合과 努力이 切實히 要望된다. 衆智

를 動員하고 總力을 集結함으로써만 自體 向上은 勿論 強力한 PR 活動의 展開도 可能하다고 確信하기 때문이다.

再言하거나와 落後한 圖書館界를 質量 兩面으로 發展시키는 課業에 있어 그 先導의 役割을 堪當할 수 있는 實力의 機構로 圖協을 強化하는 일도 急務의 하나요, 然後 이러한 基盤 위에 서서 活潑한 PR 活動을 展開하는 일도 切實한 要望이다. 우리가 渴望하는 圖書館法의 誕生도 PR을 通해 보다 強力한 輿論의 造成을 俾하여 全國民的 要望의 “소리”로서 밀고 나서야만 비로소 可期한 일이라고 다짐하고 싶다.

“圖書館이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좋은 물건”이라는 消極的 觀念에서 脫皮하여 “圖書館은 住·食과 더불어 없어서는 안 될 必須品”이라는 積極的 認識으로 引導해야 할 義務를 느낀다.

劇場으로 向하는 市民들의 발길이 圖書館으로 돌아 오기를 바란다면 부질 없는 생각이랄까.

× × ×

셋째, 現 技術委員會가 計劃 推進中인 事業을 一層 能率的에 推進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하여 專任職으로서의 專門委員들을 두어 全力을 現在 時急히 要請되는 部門에 傾注하여 不毛의 圖書館界의 渴症과 痒症을 하루 速히 免할 수 있도록 早速히 講究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現任 技術委員 諸氏는 舉皆 圖書館이나 學校 等 現職에 있는 분들로서 圖協 委囑 事項의 進抄은 本職의 事情이 許容할 境遇에 限할 것이니 所期의 業績을 短時日 內에 期待할 수는 없는 形便인 것 같다. 더구나 이 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모두

우리 圖書館에 時急하고 重要的 基本的 事項이며 그런만큼 이 事業이 늦어지면 그 만큼 支障도 漸加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인데 어찌 이런 일들을 副業의 觀念으로 安易하고 遲遲하게 끌고만 가려는 것인가? 이와 같은 現象이 어떠한 方法으로든 是正되지 않는 限 우리 나라 圖書館界는 亂脉相을 免치 못 할 것임은 明若 觀火하다. 이는 決코 現 技術委員 諸氏를 탁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달리 現職을 兼한 분 들로서는 이와 같은 時急하고 重要的 諸 事業을 早期 成就한다는 것이 過重한 負擔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指摘하려는 것 뿐이다. 처음부터 1人 2役의 구차한 方法으로 結實할 수 있는 만만한 일이 아닌 줄 안다. 어련하지만 眞 眼目으로 다루어야 될 일이지 決코 彌縫策으로 收拾될 수 없는 일들임을 銘心해야 될 줄 안다.

그리고 添言하거나 圖書館에 關한 일이라 해서 唯獨 圖書館人의 힘 만으로 다 될 수 있다는 偏狹한 思考方式은 禁物이라는 것이다. 무릇 各 分野의 學者나 專

門家의 所見이나 提案도 慎重히 參考할 雅量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안다.

따라서 圖書館 專門職으로서의 有能 人士를 核心體로 하고 各界의 學者나 專門家로 諮問委員을 構成하는 보다 強力하고 實踐性 있는 專任職으로서의 技術委員會를 構成하는 것이 또한 緊迫한 問題라고 하니 할 수 없다. 그리 함으로서만 탐탁한 成果도 期待할 수 있을 것으로 안다.

× × ×

以上에서 條理 없이 몇 가지 愚見을 奉仕人의 한 사람으로서 開陳하였으나 勿論 素朴하고 正鵠을 잃은 點이 많을 줄 안다. 다만 先輩諸賢과 同人 諸位의 高見을 바라는 뜻에서 所信의 一端을 밝힌 것 뿐이다.

모름지기 우리는 圖書館의 發展과 圖書館人의 本然의 位置를 確立하기 爲하여 “뉴·루न्티어”의 精神으로 勇往 奮發해야 될 때라고 確信해 마지 않는다.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司書教師 講習會 開催

忠南 圖書館協議會에서는 道와 共同 主管下에 司書教師 講習會를 오는 12月 18日 부터 22日 까지 大田大學(大田市所在)에서 開催하리라는 데 본 講習會에서는 道內 中, 高等 및 私立大學을 包含한 各 學校當 1名의 教師와 公共 또는 其他 大學에서도 現職 圖書館人들이 參加케 되리라 한다.